여야, 노무현 서거 14주기에 "盧 정신 기억하자" 한 목소리

봉하마을 4500여명 참석 추도식
국힘 "참여 민주주의 돈으로 오염"
민주 "불통 대통령 민주주의 위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엄수됐다. '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한다'가 올해 추도식 주제다. 노무현 재단은 '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한다'고 믿은 노 전 대통령의 생각을 나누겠다는 의지를 담아 주제를 정했다.

노무현 재단은 추도식에 참석한 4500여명을 포함해 참배객 등 7000여명이 봉하마을을 찾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 아들 노건호 씨, 딸 노정연·곽상언 부부 등 노 전 대통령 가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한덕수 국무총리, 여야 정치권 인사, 시민들이 추도식에 참석했다.

지난해 퇴임 후 5년 만에 추도식을 찾았던 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2년 연속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복 정무수석과 추모 화환을 보내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는 정부 대표로 지난해에 이어 봉하마을을 찾았다.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총리,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추도사를 낭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노 전 대통령은 책임정치에 충실하고 국정 연속성을 높이고자,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했지만, 떠난 지 14년이 다 되도록 우리는 유업을 이뤄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제가 정치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이 머지않았지만, 온 정성으로 정치개혁 유업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 전 대통령은 원칙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대통령으로 그 단단한 신념, 우직한 한 걸음이 대한민국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었다"며 "'강은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소외된 약자를 보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에 온기를 더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대통령 노무현'은 특정 진영, 정파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었다"며 "이제 우리가 뜻을 이어, 깨어있는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 당 소속 의원들과 이해찬 전 대표 등 원로 인사들까지 집결했다.

여권 인사들도 봉하마을에 모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구자근 대표비서실장, 윤희석 대변인, 정점식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진보당 윤희숙 대표 역시 추도식 자리를 지켰다.

여야는 이날 일제히 '노무현 정신' 계승을 다짐하면서도 한편 상대를 향한 견제구를 날리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진짜 노무현'에게 다시 돌아간다"며 "'노무현 정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매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노 전 대통령의 영화를 보고 2시간 동안 울었다고 하지만 제1야당과는 단 20분도 마주 앉아 대화한 적 없다"며 "'불통 대통령'에게 위협받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무수한 갈등 속에서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통합과 원칙의 가치'를 떠올린다"며 "국민 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며 발자취를 기억하겠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도 "국익에 반하는 선전·선동으로 국민 분열이 초래되고 노 전 대통령이 강조한 참여 민주주의마저 돈으로 오염된 상황이라 그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온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정의당 위선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천하셨던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린다"며 "'노무현 정신'을 기억하며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지금,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고인 말씀이 더욱 깊게 다가온다"고 꼬집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권양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참석 인사들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을 마친 뒤 헌화·분향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尹 "민노총 불법집회, 국민 용납 어려워…법집행 공직자 국가가 보호"

"한미일 안보 공조 업그레이드
우크라 경제 재건 최대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모두 발언은 약 17분 동안 생중계 방송됐다.

윤 대통령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로 한 '외교 슈퍼위크' 성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먼저 안보 문제와 관련,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자유세계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에 대해선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외교와 관련,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남국, 대선 전후 2억5천만원 현금화 재산 신고도 안한 이 돈 어디로 갔나"

윤재옥, 자금세탁 의혹 거듭 제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거래·보유 논란과 관련, "김남국 코인 게이트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대선 직전 자금세탁 의혹 등을 거듭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코인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선 기간 440만원만 인출했다면서 스스로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면서 "실상은 작년 2월과 3월, 대선 전후 기간에 무려 2억5000만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한 걸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거래소 연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 놓고 위장용 통장을 들고나와 온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때 현금으로 인출한 2억5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돈은 어디로 갔나"라고 따져 물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김 의원이 대선 직전 위믹스 코인 약 51만개를 클레이페이 59만개로 교환한 것도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며 "발행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에 '몰빵'을 해서 약 15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자금 세탁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실제 클레이페이는 출시 6개월 만에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고,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해서 급조된 자금세탁소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대선 직전 자금을 세탁하고 현금을 대량 인출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결백을 주장하며 허위 보도 책임을 묻겠다던 김 의원은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서 몸을 숨기고 있다.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 인멸하기 위한 잠적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의원은 즉각 돌아와서 검찰 수사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김 의원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적 분노만 커지고 죄가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60th ANNIVERSARY
60년의 동행, 함께 빛낼 100년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

어떤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새마을금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안전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는 1983년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은행보다도 먼저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왔으며 다른 금융기관과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금도 다르지 않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별로 각각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불준비제도라는 이중 안전장치가 있어, 새마을금고 고객은 언제든지 예·적금을 안심하고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준비금과 지불준비금 합계액 14조 8천억원

새마을금고는 건전합니다 (대출관리)

새마을금고는 대주단협의체 구성으로 사전에 대출리스크관리가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 공동대출은 선순위이며, LTV 60% 수준으로 충분히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함께합니다 (사회공헌사업 및 ESG경영 실천)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말 기준으로 지역사회에 2,156억원을 환원하였으며, ESG경영 실천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 분야별 추진 실적 (기준: 2022년말)

총계	지역사회지원	지역사회투자
2,156억원	407억원	1,749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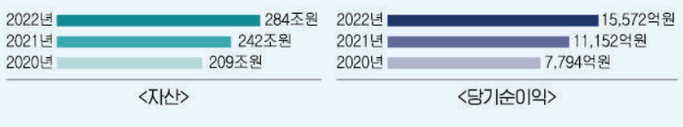
새마을금고는 든든합니다 (재무건전성)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이외에도 총 자산의 약 7.3%에 달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내부잉여금 8조 8천억원, 자본금 11조 4천억원, 회원 배당금 5,956억원

새마을금고는 성장합니다 (꾸준한 당기순이익)

새마을금고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충실히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비전 새마을금고는 다짐합니다 (자산 300조원 달성 기원)

60년간 지역주민의 곁을 지켜온 새마을금고는 자산 300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으로부터 받은 사랑, 든든한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MG새마을금고